

# 광주서 미국·인도 등 세계 음악을 만나다

8월 25~26일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문화전당 야외무대에서 무료 관람  
7개국 16개팀 국내외 협연 무대  
지역 신인 참여 기회 '반디밴드'  
시민 참여 워크숍·퍼포먼스도



혁오밴드



손 카리베(하와이)

'한여름밤, 신나는 월드 뮤직의 세계로...'

지난 2010년 처음 열린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신선한 즐거움을 줬다. 가요, 팝 등 익숙했던 대중음악 장르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각국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축제는 흥겨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전남대, 풍암공원 등 광주 지역 곳곳에서 열려왔던 축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서 전당으로 장소를 옮겼고 지난해부터는 'ACC월드뮤직페스티벌'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2017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오는 8월 25일, 26일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에서 개최된다. 공연장소는 메인 스테이지인 예술극장 빅도어를 비롯

해, 아시아문화광장, 민주평화교류원 광장 입구 계단을 고루 활용한다.

올해는 인도를 비롯한 7개국 16개 팀의 협연 공연과 평소 접하기 힘든 세계 음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음악 축제를 통해 잘 알려진 가나의 킹 아이노바(King Ayisoba),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인 멕시코의 파코 렌테리아(Paco Renteria), 하와이를 대표하는 라틴 음악 뮤지션인 손 카리베(Son Caribe), 인도 전통악기 '타블라' 연주로 유명한 인도의 요게시 삼시(Yogeshi Samsi)가 참여한다. 또 안달루시아 지방의 집시음악과 플라멩코, 아라비안 음악의 절묘한 조합을 선보이는 이탈리아의 알모라이마(Almoraima), 태국 전통 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

시아 세븐(Asia7), 다재다능한 비주얼 아티스트인 프랑스의 크리스(CHRIS) 등이 공연에 나선다.

국내 아티스트로는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혁오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드물게 브라질리안과 아프로쿠반 음악을 동시 연주하는 로스 아미고스, 한국전통음악을 추구하는 밴드 김주홍과 노름마치, 록과 포크에 기반을 둔 아마도 이자람밴드 등이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5일 밤 11시부터는 12시까지 DJ 반달락의 디제잉 공연이 준비되었다. 또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아마추어 밴드들의 무대인 '반디밴드'도 운영된다.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월드뮤직 책자와 소품, 음반을 만날 수 있는 '뮤직 라운지'를 운영하며 월드 뮤직을 기반

으로 한 어린이 워크숍과 야외 퍼포먼스, 월드뮤직 포럼 등이 대거 준비된다. 또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시민 참여 워크숍(악기 연주, 댄스), 월드뮤직 영화를 상영하는 ACC 빅도어 시네마도 열리며 푸드트럭과 음악소품, 수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는 플라마켓도 운영한다.

그밖에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여름과 한겨울의 콜라보레이션-쿨링 스퀘어' 조성을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먼저 체험해 보는 행사도 마련된다.

이번 공연과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3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10개팀 선정

9~11월 공연 지원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2017 월요콘서트'에 오는 10개 팀 공연작품을 최종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 월요콘서트'는 오는 9월4일 '문화장작소 그레이스'의 '클래식 콘서트-양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그중 문화장작소 그레이스의 '클래식 콘서트-양림', 창작국악그룹 '그루'의 '윙터', 더블루이저즈의 'Jazz land-Band of stars', 베이 스튜디오의 'Fall in the Melting', 대금연주단 '여울림'의 '풍향', 슈빌리 앙상블 'Concerto dell'Amore(사랑의 콘서

트)', 플루티시모 앙상블 '플루트소리! 낙엽에 휘날리다', 프로젝트그룹 '온비'의 '국악, 온비에 스미다', 윤소희의 '첼리스트 뮤직바스켓', 광주연시 안요델클럽의 '창립 40주년 기념음악회-세계 민속 음악 페스티벌'이 뽑혔다. 선정된 팀은 출연료 100만 원, 공연장, 부대시설,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받는다.

'2017 월요콘서트'는 1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및 공연활동 기회를, 관람객들에게는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무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목요상설무대'가 열렸으며 올해부터는 '월요콘서트'로 운영된다. 공연은 무료관람. 문의 062-670-794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20일 빛고을 국악전수관 목요 한마당

제542회 목요 열린 국악 한마당 '남도 춤 가락과 멋과 소리' 공연이 오는 20일 저녁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남도 전통 춤 사랑 연구원' 박순영 원장을 초청해 남도 춤 가락과 함께 우리 국악의 멋과 소리를 선보인다.

박순영 원장은 이번 공연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소나무 향기에 비유해 전통 무용을 통해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창작무 '송향'을 비롯한 태평무, 정·중·동을 고루 갖춘 교방무 춤(이매방류 무형문화재) 등 전통 무용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중간마다 가야금병창과 거문고산조, 대금연주, 신민요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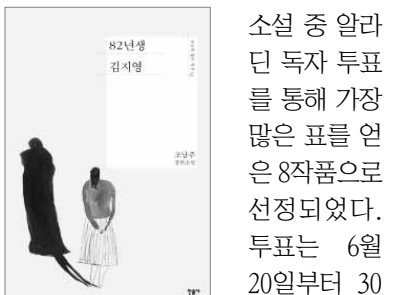


박순영 원장

## 민음사·알라딘, '오늘의 작가상' 후보작 8편 선정

2017 오늘의 작가상 최종 후보작 8편이 발표됐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민음사 주관, 알라딘 후원으로 진행되는 2017 오늘의 작가상 최종 후보작 8편이 독자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고 전했다. 선정된 작품은 조남주 '82년생 김지영'(사진), 김훈 '공터에서', 정이현 '상냥한 폭력의 시대', 최은영 '쇼코의 미소', 손원평 '아몬드', 황정은 '아무도 아닌', 김영하 '오직 두 사람', 조정래 '꽃밭도 꽃이다' 등 총 8작품이다. (이상 작품평 가나다순) 최종 후보작은 본심에 오를 20편의



소설 중 알라딘 독자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8작품으로 선정되었다. 투표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됐으며, 총 투표 수는 5만4097표이다. 수상작은 8월 중 민음사 블로그 및 알라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

## 전직 정보요원이 15년간 파헤친 '죽음 너머의 삶'

김광수 '죽음과의 결별'

"순환구조가 막힌 병든 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전직 국가 정보요원이 과학적 근거로 파헤친 죽음과 윤회에 대해 담은 책을 펴냈다. 구례 출신의 김광수 작가가 펴낸 '죽음

과의 결별'(마음과 경계)은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업, 윤회)'에 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자는 사카무니 부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논증을 통해 죽음 이후를 이야기한다. 이에 앞서 저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결국 죽는다. 그럼 그 죽음을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과연 인간과 개와 새와 물

고기의 우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너머의 윤회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김 작가가 죽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은 15년 전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을 겪고 나서다.

그로부터 불교와 중국어 공부에 심취했다. 책에는 저자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깨달았던 결과물들이 깊이 있는 사유와 정갈



한 문체로 담겨 있다. 저자는 "살아 있는 어떤 것도 개별화된 실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마음만이 실재한다"며 몸(체)과 마음과 세계(우주)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세계(우주)는 마음의 결과라고 천명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향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